

OECD 회원국의 기업가정신지표 개발 동향 및 시사점

최정수(경제통계실) · 최성욱(연구기획실)

< 목 차 >

- I. 기업가정신지표 프로젝트(EIP) 소개
- II. 주요 국가의 개발 동향
- III. 시사점

I. 기업가정신지표 프로젝트(EIP) 소개

1. EIP 구성 및 역할

OECD 회원국내에서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정의 등 전반적인 통계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가정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회원국의 재정적 제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업가정신의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른 회원국간의 통계구축방법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OECD 통계국은 회원국별 조사와 행정자료를 통해 수집한 기업가정신 관련 정보를 다양한 분석틀로 분석한 뒤 규모(size class)별 기업통계 DB에 수록해 놓고 있으나, DB내용이 일부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별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준으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용한 정책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OECD 각료급 회의에서는 회원국이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정책개발과 모니터링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업가정신통계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덴마크 주도로 주요 OECD 회원국이 '역동적 기업가정신을 벤치마킹 하기 위한 국제 컨소시움(International Consortium for Entrepreneurship : ICE)'을 결성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기업가정신포지표 개발을 추진해 왔다. 한편 이와 별개로 OECD도 2006년에 기업가정신포지표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하였다. 이 그룹은 미국의 카우프만재단(Kauffmann Foundation)이 주도적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OECD 기업가정신포지표 프로젝트(Entrepreneurship Indicators Project, EIP)는 국제비교 가능한 기업가정신포지표 개발과 매뉴얼 작성을 위한 기업가정신포지표 연구자, 정책 및 통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¹⁾으로 OECD 회원국가의 데이터 원천, 데이터 수집방법 등에 관한 운영방향 논의하고 매뉴얼 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OECD 기업가정신포지표프로젝트그룹의 Steering Group은 국제 비교 가능한 기업가정신포지표 개발을 위한 조언 및 방향성을 논의한다. 현재 이 그룹은 통계 및 기업가정신포지표 관련 정책 전문가로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약 2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장은 덴마크 경제부 기업정책 과장이 맡고 있으며 부의장은 미국 노동통계국 기업체 모집단 과장이 맡고 있다. 참여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독일, 한국,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유럽연합이며, 향후 프랑스 및 룩셈부르크가 참여 예정이다.

동 그룹은 OECD 산업, 혁신 및 기업가정신 위원회 및 중소기업(SME) 및 기업가정신 워킹그룹과 연계하여 협력하고 있다. 또한 UNECE,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유럽기업가연구재단, 미국 Kauffmann재단으로부터 한시적 재정 보조를 받고 있다. 정기 회의는 연 2회이며, 잠정적 장소는

1) 프로젝트 개요 및 제1회 프로젝트그룹 회의 발표자료에 관한 웹사이트
(http://www.oecd.org/document/7/0,2340,en_2649_33715_37719559_1_1_1_1,00.html)

OECD(파리)이고, 또한 경우에 따라 특별 컨퍼런스 개최 및 전자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EIP는 각국 참여자의 자발적 공헌에 의해 유지하며, 단기간의 산출물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규모 모듈에 의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OECD 통계국은 EIP의 실질적인 작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Kauffmann 재단은 2007년까지 재정지원을 하고 OECD 중소기업(SME) 워킹그룹은 생산성지표 작업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EIP의 작업일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는데, Kauffmann 재단의 지원에 의한 프로젝트는 2007년 6월에 진행보고서를 작성하며, 2007년 9월에는 측정매뉴얼(잠정)을 만들고 2007년 9월에 잠정지표 Set을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한편 국제컨소시엄(ICE)지원에 의한 프로젝트는, 2007년 3월에 높은 생산성(High Growth) 관련 프로젝트 보고서 및 2007년 6월에 위험자본(Risk Capital)에 관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EIP의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기업가정신 측정 매뉴얼 개발, 작성 가능한 핵심지표 선정, 기존 기업가정신 DB 개발, 새로운 시험조사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모듈 개발, 기업가정신지표 수집 및 통계척자 발간 등이다. 향후 EIP 작업의 홍보 및 인식공유를 위하여 OECD는 2007년 6월에 세계포럼(이스탄불)에서 기업가정신에 관한 Workshop을 개최하며, 또한 2007년 가을에 High Growth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2. EIP 내용

OECD는 기업가정신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자원을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과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할 수 있는 의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지표를 성과지표와 조건지표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조건지표(condition indicators)
기업의 창업률(기업 규모별)	기업가정신 교육
고성장 기업의 측정	재정접근도
기업소유	조세 및 인센티브
기업의 진입과 탈퇴 정도	혁신과 연구개발
기업의 생존율	기술접근도
다양한 혁신지표들	재창업율: 파산 환경
대학에 산학기술 파급효과 정도	진입가능정도 : 행정부담
	특허건수 및 특허 생산성
	토대 및 생활의 질

자료 : Davis, T. (2006)

OECD는 이상의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개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EIP 프로젝트 개요

OECD 통계국은 기업가정신을 정의·측정하는 옵션과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기업가정신의 영향 혹은 결과를 탐색하는 기업가정신지표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EIP는 서로 연관된 다섯 개의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 ①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자금조달 : 관련 분석가와 정책입안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수준 및 자금조달 규모를 결정
- ② 데이터 필요성 파악 : 기업가정신과 연관된 정책관련 이슈 및 흥미 있는 분석 이슈들을 확인하며, 이를 위해 어떠한 국제통계정보가 요구되는지를 파악
- ③ 기존 데이터 확인 : 기업가정신에 관해 누적된 기존통계정보를 평가
- ④ 개념 및 정의 수립 : 기존 데이터 셋의 수렴을 장려하고 기업가정신에 관

해 비교 가능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며 기업가정신이 강조하는 요소들을 비교하기 위해 공통의 개념과 정의를 수립

- ⑤ 미래 기업가정신 데이터수집 활동범위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지표의 기초 측정 데이터 수집을 가능케 하는 매뉴얼을 개발

2) EIP의 세부 내용

가.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자금조달

국제적인 기업가정신지표 프로그램이 개발·수행되기 위해서는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등 양측 모두에서 데이터 사용자 및 각국의 통계청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강력한 헌신과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네트워크의 초기 개발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가정신지표 작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처음부터 참여하도록 만드는데 필수적이므로 OECD 통계국은 각국의 정책입안자 및 통계전문가로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하였다.

이에 따라 OECD는 2006년 12월에 기업가정신에 관심 있는 정책분석가와 통계실무가의 확대된 프로젝트그룹의 결성을 통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ICE, OECD 중소기업정책국, 기업가정신 연구와 개발에 관심 있는 일부 국가 및 비정부단체와 지표개발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협력적 협약'을 구축하였다.

나. 데이터 필요성 파악

국제적으로 가치가 있고 관련이 있는 통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필요성을 이해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OECD 통계국은 OECD 및 회원국 내 정책분석가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업가정신에 관한 이들의 정책적 관심을 데이터 조건으로 변환시키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은 기업가정신과 관련해 수많은 정책적 선입견을 가지

면서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을 연계시키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최대 성장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극대화 혹은 성장에 기여하는 형태의 기업가정신 극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저개발지역의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괴리(economic disparity)가 해소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이 성장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변수들은 무엇인지,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종류의 기업가정신은 존재하는지, 정책 영향을 모니터 및 평가하는 작업에 요구되는 조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대답을 못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격리된 과정이 아닐뿐더러 기업가적 활동과 기업형성 및 성장은 모두 복잡하고 역동적인 경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측정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커다란 과제이다. 유럽통계국(Eurostat)과 일부 OECD 국가에서는 기업가정신을 비롯한 중요한 이슈를 확인하는데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다. OECD 선행연구는 기업가정신과 경제활동의 다양한 측정사이의 연계를 확인하는데 기여했으며, 세계은행과 미국의 카우프만 재단 등도 이러한 이슈를 탐색하는데 역할을 해 왔다.

다. 기존 데이터 확인

분석가와 정책입안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기업가정신과 연관된 일련의 통계는 이미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에서 발표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 데이터 셋은 대부분 국내용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도 있는데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가 발표하는 데이터가 대표적이다. GEM은 각국 서베이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하고 있다.

유럽통계국은 일련의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업성공요인에 관한 서베이인 기업체 동태(Business Demography) DB를 개발해오고 있다. OECD 통계국의 EIP 스텝진은 향후 OECD 통계작업이 보다 완전해지도록 유럽통계국 서베이 관계자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IP 목적은 기업가정신 데이터의 확장 및 확대에 이미 사용자의 필요나 품질기준을 충족시킨 데이터를 중복 내지 대체하는 작업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EIP는 국제적 전문가와 각국 통계청이 협조하여 현재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존 데이터는 어디에 있으며, 어느 부문에 새로운 데이터 생산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 개념 및 정의 수립

기업가정신에 관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개발의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기본개념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의 정의를 수립하는 작업이다. 이는 어떠한 용어에 대해 어떤 국가는 광의의 개념을, 다른 국가는 협의의 개념을 사용할 경우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로 다른 기업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용어가 요구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적 비교가 진전되기 전에 공동의 정의와 표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 특히 중소기업 문제에 관한 실무진과 위원회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통계국 전문가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 미래 기업가정신 데이터 수집 활동범위

국제적 비교·분석을 위해 기업가정신에 관한 기존 데이터 셋의 수렴을 촉진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데이터 격차는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GEM은 한 국가의 기업가정신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가계조사에 중점을 두는 반면, OECD는 가계와 기업조사 모두의 가치(value)와 적절성(appropriateness)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수준과 관련해 비교 가능한 데이터 외에 새롭게 창업한 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정보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자금조달, 기술의 영향 및 한 국가의 전반적인 기업가정신 환경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표 등이다.

3. EIP 발전 방향

현재 개발 중인 기업가정신통계 수집활동(안)은 위에서 언급된 세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정책 이슈를 다루고, 데이터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인 조사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활동안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과거의 성공적 모델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각국 통계청과 공조해 수립된 국제표준 정의를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는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PISA)같이 국가별 스코어보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가정신포는 분석가와 정책입안가가 기업가정신의 결과 혹은 영향(특히 생산성, 부 및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과 함께 기업가 활동과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도록 신뢰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OECD 통계국은 기업구조통계(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SBS) 프로그램에 따라 각국간의 창업률을 비교 연구할 계획이다. 동 프로그램은 기존 데이터를 개선하고 기업가정신에 대한 각국의 개념차이가 비교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정의적 이슈들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주요 국가의 개발 동향

1. 덴마크

덴마크 정부, 특히 경제부는 201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업이 창업되고 높은 성장기업을 육성하려면 기업가의 개인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Hoffmann(2006)은 이를 숙련(skills), 기회(opportunities), 자본(capital), 인센티브(incentives), 동기부여(motivation)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덴마크 정부는 기업가정신을 ‘기업의 진입과 퇴출 및 고도성장기업의 창출(entry and exit of firms and creation of high growth firms)’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성과지표, 기업환경지표, 태도지표, 상황지표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지표의 품질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즉 공식적인 정부기관(통계청, 국제기구 등) 등 사실에 근거한 조사(fact-based survey)에서 생산한 지표는 매우 좋은 지표(very good), 활동에 근거한 조사(action-based survey)로부터 생산한 지표는 좋음(good), 그리고 의견에 근거한 조사(opinion-based survey)로부터 생산된 지표는 수용(acceptable)으로 분류하여 기업가정신 지표의 정확성에 관한 품질을 측정하고 있다. 덴마크의 기업가정신 지표체계는 다음과 같다.

기회	자본	능력	인센티브	동기부여/문화
기업진입/ 탈규제	대부금	무역교육	개인소득세	기업가적 동기 부여
외국시장접근	부 및 상속세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세/ 재정 인센티브	특정그룹의 혁 신지향성
기술이전	기업투자금	재창업 기회	사회보장 비차별	영웅에 관한 대화
민간수요조건	벤처자금	기업가정신 토대(공공)	행정 부담	
조달 규제	자본세	기업가정신 토대(민간)	노동시장 규제	
	주식시장		파산 제도	

자료 : Hoffmann(2006)

2. 미국

미국의 기업가정신지표 개발의 주된 특징은 지표 수요자의 욕구를 국가, 광역, 소지역 등 지역단위와,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표제공 범위도 기업자료 뿐만 아니라 가구자료도 제공하며, 특히 종단자료

(longitudinally linked)를 통하여 기업의 장기 시계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표 제공범위를 보면, 기업의 생멸, 고용의 변화, 연도별 기업생존율, 산업별 연도별 생존율 등의 지표가 제공된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지표는 국가의 조세정책, 인센티브 및 기업 인큐베이터, 과학단지,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간 수요자 들을 위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기업가정신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이용된 자료의 원천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행정부서의 조세자료를 통하여 기업의 고용 동향 및 임금, 소득 자료가 확보되며, 미국노동통계국, 중소기업국 및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업통계 DB 자료, 기업조사, 가구조사 등에 관한 자료가 이용된다. 노동통계국에서 제공되는 기업가정신지표는 행정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매우 포괄적인 자료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비영리 연구기관인 Kauffmann 재단에서는 기업가정신 활동지수(가구자료), 기업가적 활동 패널연구(가구조사), Kauffmann 재정 및 기업 DB, Kauffmann 기업조사 등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에 관한 통계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향후 OECD EIP 그룹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기업가정신의 정의, 개별 자료의 연계, 국제 비교가능한 지표의 작성 등에 관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3. 한국

현재 한국에서 기업가정신지표 개발은 공식적인 통계기관에서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기관에서 일부 경제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가정신지표를 발표한 사례가 있다. 민간기관에서 작성한 기업가정신지표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고 지표수가 매우 적으며 또한 기업에 관한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2005)의 기업가정신지표는 기업가 정신의 호조와 둔화를

나타내는 대리지표로서 사업체수 증가율(5인 이상 제조업광업), 설비투자 증가율과 민간연구개발비 증가율 등 3가지 구성요소를 단순 평균한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 즉 기업가정신지표(%) = (사업체수 증가율 + 설비투자액 증가율 + 민간연구개발비 증가율)/3으로 산출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04)는 기업가정신을 '자원의 제약과 위협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모험정신을 발휘하여 창업, 성장, 신사업, 신시장을 일구어 고도화를 꾀하는 기업가의 의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가정신지수는 수출 증가율, 투자증가율과 사업체수 증가율을 통합하여 산출하고 있다.

통계청은 현재 행정자료 및 각 통계조사자료를 토대로 약 18만개의 회사법인 기업체 모집단 DB를 구축중이다. 또한 국내 회사법인 중 종사자 50인 이상, 자본금 2억 이상인 약 13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6년에 2005년 기준 기업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을 보면, 기업의 구조와 구조조정 추진실태, 기업의 계열화, 국제화, 사업추진현황(업종 다각화, 아웃소싱), 수익구조와 투자실태, 기업의 연구개발, 기술 소유, 기술거래 실태, 그리고 기업의 정보화 등 경영방향(프랜차이즈, 신규사업 진출 등)이다.

향후 기업체 모집단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기업활동실태조사의 시 계열 자료가 향후 구축된다면 한국의 기업가정신지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Ⅲ. 시사점

금년 기업가정신지표 프로젝트(EIP)의 주요 논의 사항은 기업가정신의 정의 및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의 작성에 대한 가능 여부이다. 이미 미국, 덴마크, 핀란드 등 일부 OECD 회원국들은 자국의 기업가정신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국제기준의 미흡으로 국가별로 지표를 비교하기에는 정의, 범위 및 원천 데이터의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금번 회의는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EIP에서는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고, 데이터 수집방법 및 지표범위, 지표 Set 등을 체계화 할 매뉴얼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기업가정신지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행정자료(조세, 소득, 고용 등), 구조통계(기업체수, 기업규모, 종사자수, 매출액, 연구개발 등) 및 Dynamic 통계(기업 생멸,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기업 환경 등)에 관한 장기 시계열 자료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청과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책수요부서의 자료와 기업가정신 관련 행정기관의 조사자료 및 행정자료를 취합하여 기업가정신관련 통계 DB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통계청 산업통계과에서 구축 중인 기업체 통계 DB 및 기업활동실태조사는 이를 위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 기업 및 지역 등 수요자가 원하는 통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지표 Set을 개발하고 이러한 지표가 실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EIP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기업가정신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타국과 비교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Clayton, R. etal. (2006), Profile of US Data Sources on Entrepreneurship.
OECD Entrepreneurship Indicators Steering Group, Rome Italy.

Davis, T. (2006), Project Governance - Proposed Mandate, Goals and
Operational Arrangements, OECD Entrepreneurship Indicators
Steering Group, Rome Italy.

Hoffmann. A. (2006), Entrepreneurship Data, Research and Policy - The
Danish Case, OECD Entrepreneurship Indicators Steering Group,
Rome Italy.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기업가정신의 현황과 시사점.

통계청(2007), 2005년 기준 기업활동실태조사표.

삼성경제연구소(2004), 기업가정신의 약화와 복원방안